

韓國의 傳統的 政治文化의 展開

—近世以後의 連續過程을 中心으로—

金雲泰*

<目次>

- | | |
|--------------------|-------------------|
| 一. 序 | 五. 實學派의 政治思想 |
| 二. 古代·中世의 政治文化의 傳統 | 六. 近代的 國家意識의 萌芽 |
| 三. 近世 朝鮮王朝의 政治文化 | 七. 開港以後의 政治文化의 展開 |
| 四. 士林派의 政治思想 | 八. 結論 |

一. 序

여기서 傳統的 政治文化라 함은 過去에서 現在까지 連續性있게 繼承되어 오면서 現在에도 支配的인 慣行으로 살아있는 政治的 思考 및 行爲의 樣式을 뜻하는 것이며 그와같은 文化的 傳統은 過去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現在에도 相當한 社會的 適合性을 維持하면서 오늘날 社會成員들의 政治的 價值志向이나 規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政治文化를 일컬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現代社會에서는 이미 適合性을 갖지 않는 낡은 文化類型으로서 傳統社會라고 하는 特殊한 社會構造에서만 適合했던 그러한 文化類型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現代社會에서도 適合性을 유지하고 있는 過去로 부터의 遺產으로서의 文化的 傳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社會가 急速度로 變動하고 近代化하는 過程에서는 傳統社會가 解體되면서 政治文化에 있어서도 急激한 變化를 일으키며 새로운 社會構造에 대해서 政治文化的인 適合性의 危機를 造成하게 된다. 그리고 近代化로 因한 社會構造의 變動이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傳統的인 生活樣式이나 思考方式도 보존되고 있으면서 外來的인 行爲樣式도 적지않게 擴散되어 있는 中間的인 段階에서의 過渡的文化로서 一種의 混合文化的 形態를 취하게 되나 이러한 단계에서의 政治 文化的 特징은 生活樣式과 價值觀등에 있어서 階層間, 世代間, 都市와 農村間의 격차가 생기고 이른바 非同時的인 것의 同時的인 混在가 일어나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教授

는 상황이다. 여기서 社會成員들은 상황에 따라 二重的인 價值와 規範을 따르지 않을수 없는 政治文化의 二重構造가 形成되며 일반적으로 適合性을 갖는 行爲樣式를 발견하기 어려운 所謂 아노미(Ammie)를 경험하게 되며 이와같이 價值와 價值, 價值와 規範, 規範과 規範간의 갈등과 混亂이 惹起되고 傳統的 價值와 外來的 價值의 違和感 속에서 臨時應變的 適應樣式의 假裝이나 外來的價值의 歪曲現象이 나타나기도하기 때문에 混合政治文化에 있어서는 適合性의 危機뿐만 아니라 政治文化的인 主體性의 危機와 統合의 危機도 造成되는 것이다.

外來政治文化가 導入되어 初期의 模倣期를 거쳐 外來的인 行爲樣式이 廣範하게 擴散되는 단계에 이르면 外來政治文化는 文化的傳統의 主體性을 위협하게 된다. 그와같은 主體의 危機에 당면한 社會에서는 政治文化的傳統과 傳統文化에 대한 關心이 高調되어진다. 그러나 政治文化的 復古主義나 閉鎖主義는 主體를 回復시키는데에는 效果的일지 모르지만 適合性의 危機는 더욱 高調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主體의 回復과 政治 文化的傳統의 回復은 政治文化의 適合性을 회생시키지 않는範圍內에서 즉 現代社會에서의 適合性을 유지할수 있는 政治文化的傳統의 再創造와 그와같은 政治文化的傳統과 잘 統合되는 外來政治文化를 選別해서 受容함으로써 비로서 可能한 것이라 하겠다.

이리하여 近代化가 促進되더라도 適合性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固有한 政治文化的主體를 간직하는 政治 文化的 連續性을 발견하는 일과 아울러 政治文化的諸要素 換言하면 政治的 價值와 規範 및 慣行간의 一貫性과 體系性을 確立하는 文化的統合性을 유지하는 일이 政治文化的 正統을 確立하는데 不可缺의 條件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萬一 政治文化的適合性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政治文化의 主體性을 상실할 危險을 안게 되며 또 만일 지나치게 政治文化의 主體만을 강조하게 되면 政治文化의 適合性의 危機를 가중시킬 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또한 만일 지나치게 政治文化의 統合性만을 강조하면 文化的 劍一主義에 빠져 政治文化의 침체를 가져올 위험이 있게 되므로 政治 文化的 適合性과 主體性 및 그 統合性은 함께 充足되는 政治文化를 形成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韓民族은 그 오랜 政治史 展開過程에서 슬기로운 民族文化를 바탕으로 外來文化를 受容하면서 이를 主體的으로 再創造하면서 特徵있는 政治文化를 發展시켜 왔다. 古代氏族社會의 神話나 各種의 民俗 및 傳統思想에서 政治文化의 傳統的基盤의 特質을 살펴 볼수 있고 三國時代以來에 佛教의 導入 및 그 自主化에로의 轉換 中世·近世에 걸친 儒教文化의 創造的受容과 道教의 導入 그리고 뒤이어 社會改編論으로서 實學運動의 展開 그리고 開港 100년간의 外壓과 自主의 葛藤이 深化하는 가운데 結局 日帝侵略으로 因한 民族文化의 試煉과 斷絕을 經驗했고 그 傷處를 깊이 안은채 8.15解放을 맞이하면서 國土가 分斷된채 外來文化의 活潑한 導入과 더불어 南北間의 文化的 異質化가 深化되고 있을 뿐더러 60年代 以來의

高度經濟成長과 民族中興 및 民族的 主體性에 대한 覺醒등 여러가지 契機에서 近來로 韓國의 政治發展 또는 近代化에 대한 評價와 民族文化 展開에 있어 傳統的 遺產의 發掘 및 그 傳承등의 問題가 學界에서나 實務界에서 眞摯하게 舉論되고 있는 實情이다.

무릇 民族社會가 거듭되는 外壓과 外侵을 받아가면서 變動하고 또 文化的인 先進國 또는 事大主義意識도 作用하면서 새로운 風潮가 導入되면 이에 抵抗하는 劢力이 擡頭하며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風潮에 同調하는 側에서는 그것에 反對하거나抵抗하는 側을 頑固한 者 또는 融通性이 有는 人間部類로만 取扱하기 일수이며 따라서 다투어 이러한 風潮를 타는 傾向도 나타날 뿐더러 새로운 外來의 思想이나 學說을 援用해서 相對方을 마치 時代錯誤人인 것 같이 斷定해 버리는 傾向도 韓國의 政治文化展開過程에서 종종 있었던 現象이다.

頭髮스타일이나 服裝의 流行은 아무리 盛行된다 하더라도 理髮館이 한산하거나 洋裝店이 收支가 맞는 程度로 別로 큰 社會的 實害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思想이나 意識 또는 行動이나 態度등 文化的 變化에 있어서는 단지 새롭다거나 또는 어느 特定文化圈의 影響이라고 해서 安易하게 넘길 수는 有는 것이다. 하물며 文化的 事大主義 意識이나 單純한 先進國模倣意識같은 것은 一國의 運命을 左右하는 問題로서 簡單히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論者에 따라서는 韓國近代化過程에서 肯定的인 面만을 지적하여 경이적 發展面을 重點으로 強調하며 또 한편에서는 否定的面을 지적해서 그 後進性을 批判하기도 한다. 그러나 發展이건 後退이건 이와같은 單線的 發展觀에서는 어느 面에서 發展하고 또 다른面에서는 後進性이 內在하는 式의 '雙方에게 不滿足한 解答밖에 나오지 않는다. 보다 重要한 것은 韓國의 急速한 發展이 과연 어떠한 不均衡을 內包하고 어떠한 性質의 것이며 왜 그러한 種類의急速한 發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點이다.

所謂 「近代社會」를 理念型으로서 構成하여 그것을 分析을 위한 基礎로 삼는 것은 이것이 理念型이라는 點을 充分히 意識하고 있는限 오늘날에도 意味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理念型을 現實의 西歐世界와 混同하는 것은 危險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와 비슷한 誤謬는 「近代化」와 傳統을 相互矛盾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近代化」가 進展됨에 따라 그만큼 傳統的 要素가 減少된다는 式의 사고방향이다. 韓國이 「進步했다」던가 혹은 「遲滯했다」는 議論은 종종 이와같은 誤導된 思考方式에 起因한 것으로 다시 이러한 思考方式이 「近代社會」를 理念型이 아니고 現實의 西歐와 混同하는 誤謬와 결부되는 경우에는 「近代化」즉 「西歐化」이며 그 程度에 따라 「傳統的(前近代的)」 즉 「韓國的」 要素가 減少한다는 式의 觀點과 直結된다.

그러나 現實의 歷史的 發展을 본다면一般的으로 어떠한 國家나 民族도 傳統을 基礎로 하지 않는 發展은 아프리카의 몇몇 民族등若干의例外를 除外하고는 있을 수 없다. 가령 韓國의 60年代以來의 高度經濟成長이 如何히 해서 可能했던가를 考察하려고 한다면 勿論 貧困으로 부터 解放하고 先進國隊列에 하루速히 뒤따르고자 하는 努力과 南北이 對決하고

있는 가운데 民族과 國家를 保衛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괴에 리드 하여야 하겠다는 民族的 使命感 등이 急速한 發展의 하나의 原動力이 되었다는 事實을 看過할 수 없다 하겠으나 如何間에 어느 경우에도 韓國의 傳統的인 要素가 遂行한 役割을 過少評價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急速한 高度經濟成長의 背後에는 傳統的 要素가 큰 貢을 한 것이며 또 바로 그 傳統的 要素는 始終一貫해서 반드시 同一한 內容과 形式을 띠우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다. 같은 傳統的 要因도 農業社會의 경우와 大衆社會에서의 경우와는 나타나는 方式이 顯著하게 相異한 것이다. 決코 後者가 增大됨에 따라 前者が 그만큼 減少한다는 關係에 있는 것도 아니며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兩者は 連續的 일뿐더러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傳統的 要因은 連續하는 過程에서 創造的 變化가 있고 거기서 高次의인 昇華發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의 急速한 發展을 認識하는 것과 그 發展을 좋게 또는 나쁘게 評價하는 問題는 別個의 意味를 가진다. 論者에 따라서는 急速한 發展에 關하여 批判的 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考察한다면 重要한 것은 歷史發展 속에서 어떤 點에 連續性을 認定하고 또 어떤 點에 어떠한 形態의 變化를 發見하느냐 하는 點이다. 歷史에는 絶對的 斷絕이 있을 수 없는 만큼 特殊적으로는 極端한 斷絕로 보이는 變化 속에서도 連續性을 發見하지 않으면 안된다. 自己의 評價로 보아 난처하고 不利하다고 생각되는 時期는 例外的 時期로서 考察의 對象으로 부터 除外해 버린다면 그 歷史評價는 明白히 틀린 것이다.

따라서 歷史過程에 關한 評價는 될수 있는 限 客觀的으로 公正히 하여야 할것이다. 물론 歷史發展과 그에 수반하는 모순이 어디에 起因해서 發生했는가 하는 問題에 關해서는 視角의 差異에 따라 各種의 相異한 接近이 가능할 것이다.例컨대 經濟學者는 經濟構造의 特質로 부터 說明하는 것이 急然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政治文化의 視角에서 傳統性의 連續過程 특히 近世以後의 歷史的展開過程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韓國政治文化의 特質을 究明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릇 政治文化를 검토하는 경우에 가장 困難한 課題는 特定文化에 固有한 論理 或은 發想에 內在的인 理解를 하면서 同時에 그것을 比較可能한 形態로 普遍的인 基準에서 分析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 경우에 韓國政治文化에 關한 內在的 理解를 관철하려고 努力하는 나머지 그 文化에 있어서의 發想의 固有性에만 執着하면 文化的 相對主義를 是認하는 結果를 가져오고 外國人에게는 理解될 수 없는 것이라는 思考方式이 된다. 他方 他國의 政治文化 특히 西歐의 政治文化 分析道具를 가지고 그대로 韓國政治文化를 分析하는데 安易하게 使用하는 경우에는 그 適用은 어떤 重要한局面 또는 要因을 누락시킨 一般論에 그치고 말危險性이 있는 것이다. 韓國이 特異한 性格의 政治文化를 가지고 있을수록 韓國의 文化라는 複合體를 어떤 特定한 分析 視角에 의해서 切斷하여 分析한다면 그 全體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무릇 韓國社會의 具體的인 狀況과 韓民族의 政治文化를 각時代區分別로 韓國

의인 發想에 따라 內在的으로 理解하면서 同時に 韓國政治文化의 特質을 可能한 範圍內에서 各時代의 一般的 基準에 焦點을 맞추어 比較를 試圖하고자 하는 것이 筆者の 本來의 意圖이다. 즉 韓國人으로서 韓國에서 살아온 社會科學徒로서 우리自身의 문제를 어느程度 分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社會科學徒로서의 能力의 問題이다. 그러나 그 結果 우리의 現實을 神化하는데 그치거나 方法的 「쇼오비니즘」에 빠져 보다 一般的인 問題에의 接近을 斷念한다면 적어도 普遍性을 指向하는 科學의 探究者로서의 資格이 없는 것이다. 韓國이란 特殊性을 통하여 어디까지 社會一般의 問題에 接近할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들 韓國의 社會科學者 앞에 주어진 課題라 하겠다.

그리고 韓民族의 政治傳統의 段階로서 時代區分에 관해서 概觀하건대 政治史나 行政史 또는 經濟史는 각 分類史들로서 이들 諸分類史의 綜合으로서 이루어 지는 것이 韓國史라는 하나의 通史이지만 그 分類史들 사이에는 각기 그 分類史대로의 獨자적 發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發展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發展의 속도에서도 그러하다. 가령 韓國의 社會經濟史라는 한 分類史의 입장에서는 近代의 始發問題에 있어서 흔히 그 遲滯性이나 停滯性 또는 不確實性을 들고 있지만 政治·文化史라는 한 分類史의 입장에서는 朝鮮朝 前期 15世紀에서 이미 近世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韓國의 政治的傳統에서 그 發展 단계를 古代·中世·近世·近代와 같은 4分法으로 区分했을 때 韓國政治史의 發展段階는 (1) 檀君의 開國으로 象徵되는 原始氏族社會에서 三國時代를 거쳐 新羅統一에 依한 統一國家發達의 時期를 古代時代로 (2) 高麗時代를 中世로 (3) 朝鮮朝 前期를 近世로 그리고 (4) 朝鮮朝 後期 開港으로 부터 日帝殖民支配時代를 거쳐 解放以後를 近代化 時代로 파악하고자 한다.⁽¹⁾

그러나 이와같은 對象과 方法으로 論題의 分析을 進行하기 위해서는 政治學뿐만 아니라 적어도 韓國通史, 社會學, 思想史, 宗敎學等 各種의 視角을 適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韓國의 歷史發展의 特質을 內在的으로 理解하는 同時に 韓國人の 各時代別 思惟構造, 態度感情등에 관한 比較文化的, 比較社會的, 또는 比較政治的 考察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課題는 감히 筆者の 能力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思慮되나 筆者は 지난 6月에 서울大 行政大學院 發展政治研究課程主催의 國家政策제미나 主題發表論文에서 制限된 時間과入手할 수 있는 資料를 土臺로 그러한 意圖와 目標에 따라 하나의 試圖를 한 바 있다.

本論文에서는 韓國의 傳統的政治文化속에서 古代와 中世의 政治文化의 傳統에 관하여 前記論文을 參照해서 要約하고 특히 近世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朝鮮王朝以來의 歷史的展開를 中心으로 論하고자 한다.

(1) 拙著 朝鮮王朝行政史 近世篇(博英社刊 1970) 近代篇(一潮閣刊 1970)의 時代區分 및 李基白 韓國史의 時代區分問題 韓國史時代區分論, pp. 6-10. 乙酉文化社 1973 參考.

二. 古代·中世의 政治文化의 傳統

(1) 古代社會의 文化傳統

韓國의 古代 政治文化의 特色은 建國神話 精神을 대표하는 所謂 「弘益人間」의 理念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다시 集團儀式을 대표하던 蘇塗나 古代 韓民族의 文化的象徵이던 고인돌(支石墓)文化등에서도 찾아볼수 있겠으며 나아가서는 古代社會以來의 部落共同體의 集團의 農樂行事의 文化遺產으로서 傳承되어온 「두례」 또는 原始社會以來로 傳承된 各種 民主的 遺制와 思想 및 圖識思想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무릇「人間을 크게 利益되게 한다」는 弘益人間의 思想은 本質的으로 親和思想이며 人間尊嚴思想으로서 이것은 神人思想이나 敬老思想과도 연결되며 또는 모든 人間은 하늘(天)앞에서 같으며 「하나다」「같다」는 人本的平等思想이나 한일思想과도 상통하는 바있는 것이다.⁽²⁾

이와같은 弘益人間의 神話나 親和思想은 고인돌(支石墓)文化나 蘇塗思想을 통하여 계승 발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 겨레는 古代社會發展에서 氏族→部族→部族國家→部族國家聯盟을 指向하면서 統一民族을 지향하여 親族共同體의結合을 계속적으로 擴大시켰으며 그가운데 그集團的統合能力 또는 親和力を發揮해 왔고 여기서 後日에 統一民族形成을 위한活力도 培養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찌기 崔致遠이 儒佛仙(道)三教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玄妙之道로서 風月(즉 花郎)을 강조한 것도 古代의 文化遺產이나 傳統精神의 脈絡을 통하여 계승되어 온 親和의 共同體精神이나 集團志向의意識을 두고 말한 것으로 思慮된다.

이와같은 傳統의 遺產은 對內的 統合力과 對外的 主體性으로서 뒷날 그것이 三國統一의 促進的原動力이 되었을 뿐더러 高句麗에 대한 舊彊恢復運動, 百濟에 대한 遺民懷柔의 親和力 그리고 對唐倭의 國難克服의活力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서는 中世國家에 있어서는 六頭品(또는 豪族)精神으로서 民族的 再結合의 統合力이 되었고 近世朝鮮에서는 선비(士林)精神으로서 繼承되어 近世國家의 推進力으로서 作用한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慮된다.

한편 우리겨레의 古代以來의 文化的遺產의 特徵으로서 西歐의 그것과 對照가되는 것으로 父權的인 家長이나 族長이 中心이되는 集團主義的 權威體系의 傳統을 들을수 있겠으며 아울러 集團志向의一般的自由와 같은 民主的 傳統을 看過할수 없다고 본다. 이는 韓國의 社會構造의 基本單位가 古來로 家族을 中核으로 하고 氏族部族과 같은 共同體本位로 自由스런 體質로 發展하여 나온데서 起因한다고보며 이 點은 바로 Greece가 우리와 그 部族聯盟

(2) 一의 精神은 靜庵 趙光祖에게서 강조되었고 그것은 朝鮮朝土林政治의 本質을 說明해주는 至治主義의 重要한 精神이었다.

「君與民 本乎一而…聖人 以天地之大 兆民之衆 爲一己…」(靜庵雜著).

的 國家形成이나 半島的風土등의 類似性에도 不拘하고 產業的 社會構造를 가지고 個人主義的 民主主義로 發展하게 되었던 것과 크게 對照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Greece의 古代政治에서는 個人主義的으로 自由롭게 政治에 參與하는 民主主義가 成長한데 비하여 韓國의 古代政治에서는 公共性 또는 公益性을 강조하되 그것은 個人이 그속에 埋沒된 集團全體에 대한 忠誠을 강조하는 集團志向의 權威體系를 基底로 成立한 것으로 볼수 있겠다. 즉 西歐式의 個人主義傳統과 對照가 되는 韩國의 集團主義의 傳統이 形成된 것이다. 例컨데 古來의 農耕部落共同社會의 農樂行事인 「두례」나 또는 옛 文獻에서 나타나는 原始社會 및 古代社會의 各種 民主政治遺制—尊長, 軍長, 村長의 選舉 또는 龍免⁽³⁾ 百濟의 氏族 評議會⁽⁴⁾ 新羅의 南堂制⁽⁵⁾ 私白制⁽⁶⁾ 高麗의 都堂會議등에서 우리는 그 傳統的特性을 찾아볼수 있는 것이다.

한편 古代社會以來로 우리 겨레는 理想主義와 進步主義思想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民間信仰이나 圖讖思想에서 엿볼수 있는 것이다.

檀君神話에도 韓民族은 祭政一致를 바탕으로 東方의 道德君子國을 세우고자 하는 일종의 理想的인 建國理念이 示唆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⁷⁾ 또 三國時代에는 佛教가 導入되자 佛教的 理念國家 또는 彌勒淨土를 建設하려는 「宿願」이 支配層사이에서 엿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古代社會의 未來觀은 주로 圖讖思想을 通해서 表現되어 왔으며 그것은 當時의 統治權力의 維持와 變動을 正當화하는 일종의 政治的 이데올로기로서 當時 民衆信仰이나 그 運動에 至大한 영향을 發揮하고 있었을 뿐더러 政治生活의 未來의 吉凶福祉와 盛衰興亡에 대한豫言 또는 徵兆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古來의 土俗巫俗信仰과 함께 겨레의 政治思想과 行動에 큰 影響을 미쳐 온 것이다. 또 圖讖은 占星(天文), 卜筮, 神託, 地理, 風水 地理등과 더불어 陰陽五行, 道術 기타 造作에 의하여 表現되는 것이 보통이나 中世高麗에서는 天文, 地理, 固有信仰, 佛力信仰과 合作에 의한 것이 많았다. 이와같은 圖讖思想은 後代의 鄭鑑錄, 許生傳의 說話, 姜餗山의 維新開闢思想, 東學의 開闢思想등으로 계승되

(3) 東國通鑑外記：「東方初無君長 有神人降于檀木下，國人立爲君，是爲檀君，國號朝鮮」에서 國人立爲君은 族員이 尊長(때로는 軍長)을 選舉했음을 말하며，

二國志扶餘傳：「扶餘舊俗，水旱不調，五穀不熟，輒歸咎於王，或言當易，或言當殺…」(魏志, 東夷傳) 즉 氣候가 不調하여 凶年이되면 王(部族聯盟의 統率者)을百姓들이 같아버리거나 죽인다는 것이다.

(4) 三國遺事(卷二) 南扶餘 前百濟條：「虎巖寺有政事巖，國家將議宰相，則書當選者名，或三四函封置巖上，順臾取看，各上有印跡者，爲相故名之」즉 百濟의 首都扶餘附近에 있는 虎巖寺에 政事巖이 있어宰相을 選任할때當選者(候補者)의 名簿를函封하여 岩山에 두었다가 얼마후에 펴보아 그 이름위에 印跡이 있는 者를宰相에任命하였다는 것이다.

(5) 李丙燾「古代南堂考—原始集合所와 南堂—」서울大.人文社會科學論文集 第一輯(1954) pp. 3-5.

(6) 隋書新羅傳：「其有大事，則聚群官，詳議而定之」

唐書新羅傳：「凡十有七等…事必與衆議，號和白，一人異則罷」以上 두記事는 和白制에 관하여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고 특히 全員一致制, 全體決議制度에 關하여 말하고 있다.

(7) 檀君神話라는 建國神和는 13세紀 中世國家段階에서 僧一然에 의하여 三國遺事에서創造된 것으로서 一然이 三國遺事를 叙述한 動機는 蒙古의 侵略으로 最大의 民族의 危機에 面하자 韓民族의 主體性 危機를 克服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어 韓民族의 進取的思想의 한 命脈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⁸⁾

以上 古代의 政治文化의 傳統에 관하여 要約해 보았다. 그것은 다시 集約하친대 우리 거례의 傳來의 共同體的 親和 換言하면 大同主義 그리고 人間을 神과 같이 貴重히 여기고 하늘(天) 앞에서 한결같이 愛民하는 人本的 平等主義와 正義를 追求하는 潔白한 性僻에서 찾을 수 있는 根本主義의 正義 意識 그리고 敬天敬愛의 政治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權威主義와 各種의 民主的 遺制에서 엿보이는 民主的傳統 나아가서는 革新的 未來觀이나 改革的進步主義등의 文化的 傳統으로 要約될수 있다고 본다.

(2) 中世社會의 文化傳統

中世高麗時代는 統一된 民族이 주로 그 對外的인 國難克服을 위한 戰爭을 통하여 民族意識을 成長시켰던 時期에 해당하며 이러한 韓國의 中世는 西歐나 日本의 中世가 封建的地方分權을 기초로 割據하여 多元的 社會로 分立하면서 富國強兵과 國利民福을 競合한 것과對照가 되는 것이다.

高麗社會는 地方土豪들의 劢力은 있었지만 그들이 多元的勢力으로 分立된 것이 아니고 中央集權의 郡縣制로 統一된 王國을 形成하였다. 政治文化面에서 統一新羅의 民族史的傳統을 이어받고 있었으며 新羅의 花郎精神이나 崔致遠의 玄妙之道 등을 통하여 古代社會의 文化的傳統의 命脈이 連續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文化的命脈은 王建太祖의 政治理念인 訓要十條에서 부터 나타나고 있었다.⁽⁹⁾ 그리고 高麗時代에서는 素朴한 民族意識의 成長과 더불어 佛教와 儒教를 導入해서 그것을創造的으로 擴大活用했을 뿐더러 다시 道教까지 導入해서 그 文化內容을 深化시킴으로서 主體的인 文化受容能力을 유감없이 發揮하였다.例컨데 高麗의 佛教는 철저한 護國佛教로서 昇華되었으며 道教思想은 蘇塗思想과 同化되어 高麗를 위한 愛國的인 風水圖讖思想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高麗時代에는 社會改革과 社會正義의 精神그리고 民主的傳統이 各種의 政治制度의 改革이나 政策面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수많은 國難을 앞에두고 官民上下 男女老少가 淨合一體가 되고 民族的으로 統合되어 國難克服을 위한 抗爭에 參與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思料된다. 例컨데 社會政策面에서 光宗代의 奴婢按檢法을 비롯하여 貧民의 疾病治療財團(濟危寶)이나 免稅制度 災害減免制, 黑倉, 義倉, 常平倉 및 官俸制등 社會政策과 福祉行政이 實施되었으며 社會正義와 均福의 理想을 具現하기 위하여 死刑囚의 三覆審制, 撫問使制도 있었고 또한 崔承老의 儒教的 政治改革論理로서 時務 28條에서는 佛教와 風水說로서 시들어 가는 高麗社會를 急進改革하여 國利民福의 增進을 꾀하기도 했으며 李穡의 儒佛同化思想에서는 君臣秩序를 강조하는 保守的改革이 또 鄭道傳은 排佛崇儒의 革命的 政治思想이

(8) 韓昇助「韓國政治의 指導理念」pp. 57-59. 66 參考.

(9) 崔昌圭「韓國政治傳統의 歷史的展開」金雲泰外共著 韓國政治論 p. 104. 博英社.

提唱되기도 했다.

한편 高麗時代는 中央·地方에 文武百僚의 經濟的 實力이 成長되어 僉侶勢力의 政治參與, 武人閥族의 등장, 文武權臣의 詐謀等 諸般勢力이 多元的으로 分출하여 民主的 社會基盤形成에 寄與한 것이다. 高麗時代에 傳承된 民主的傳統으로서 專制勢力を 擧削하는 官制裝置가 發展한 것이 注目되며 例컨데 都堂制, 臺諫制, 署經制, 科舉制, 事審官制, 司憲臺, 弘文館 및 収取制등이 그 代表的制度로서 이들은 大體로 近世朝鮮朝官制속에 계승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三. 朝鮮王朝의 政治文化(近世)

(1) 序論

朝鮮王朝時代는 政治的動態와 政治文化의 變遷에 따라 크게 建國부터 壬辰倭亂까지의 初期와 後期의 英正朝時代를 中心으로하는 實學運動時期와 그리고 一八六〇年代以後의 西勢東漸과 開港以後의 近代化時期로 區分할수 있겠다. 朝鮮朝 初期는 政治勢力의 對立·抗爭 속에서 統治理念 및 方法으로서 朱子學의 儒教文化를 輸入, 適用하며 이를 補強 反省하는 가운데 점차로 文化的 自主性을 意識하게 되는 時期에 해당하며 이 初期도 建國期와 補強期로 나누어 太祖初(1392)로부터 成宗末(1494)까지의 建國期는 朱子學의 統治理念을 導入하고 適用해서 中央集權의 官人支配體制를 構築하고 整備한 時期에 해당하며 燕山朝初(1496)로부터 宣祖壬辰倭亂時(1592)까지의 補強期는 朱子學의 統治理念과 社會現實間의 乖離가 露呈되고 政治的 社會의 矛盾을 道學思想으로 補強하기 위한 修正 혹은 그에 대한 批判과 反省으로 朝鮮朝 政治文化의 自主的轉換의 契機를 마련한 時期에 해당한다.

建國期(1392~1494) 約 100餘年間은 麗朝의 舊貴族과 朝鮮朝의 新興貴族間의 두 政治勢力의 政爭期로 특징지을수 있을 것이다. 佛教思想을 統治理念으로 하였던 麗朝가 그 末期에 虐政과 稅政腐敗로 民亂과 社會不安이 助長深化되자 小地主와 小吏인 小貴族들은 改革을 要求하고 守舊保守勢力에 對抗하는 改革派를 形成하였다. 그리고 이 改革派로 李穡(1328~1396), 鄭夢周(1337~1392)등으로 代表되는 溫健改革派와 한편 鄭道傳(1337~1398) 河峯(1347~1416)등으로 代表되는 急進改革派가 있어 分裂되어 相互對立하고 있었으며 이 중 急進改革派는 朝鮮王朝 政治體制를 구축하는데 成功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兩派는 世祖反正(1455)을 契機로 勳舊對在野가 逆轉하면서 再編成되었는데 이중 篡奪에 參加하지 못한 在野의 貴族政治勢力은 勳舊派에 대항하여 廣範한 政派를 形成하였으니 이를 所謂 士林派(또는 非官僚派)라고 한다. 이들 士林派도 世祖篡奪에 대한 그들의 態度에 따라 節義派(死六臣生六臣中心) 清談派 및 士林派(金宗直等)等으로 區分할수 있겠으나 여기서 우리는 士林派中에서 傳統政治文化의 維持와 創造的發展에 寄與한바 크다고 생각되는 建國期後期의 士林派 金宗直, 節義派 金時習 그리고 補強期 前期의 士林派新進士類 趙光祖와 補強期

後期의 李滉 및 李珥등의 思想的特徵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朱子學의 儒教文化를 輸入適用하여 中央集權의 官人支配體制를 整備한 朝鮮朝 初期의 政治文化와 制度의 特徵을 論하고 士林派와 實學派 및 開化派등의 政治思想의 展開와 政治文化의 傳統的 命脈關係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前述한 古代와 中世時代의 政治文化의 傳統중에서도 爲民思想, 人本的 平等主義 思想 敬天敬愛思想 및 民主的遺產등은 맥맥히 흘러 조선 왕조의 정치 구조와 정책 결정과정에 여러가지 형태로서 계승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조선 왕조정치의 기본 성격을 특정지우는 것은 유교적 정치 이념이었으며 그것은 첫째로 지배자의 윤리적 善을 강조하는 유교의 爲民思想⁽¹⁰⁾을 내포하고 둘째 지배자의 賢明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博詢採納의 收議形式을 취하고 있는데 있다 하겠다. 즉 전자의 위민사상으로 인하여 身分의 계급 사회 밑에서도 민중은 정치 과정에 간접적으로나마 연관을 갖게 되었으며 후자의 收議形식에 의하여 정책 결정과정의 言路(通信通路)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개방적인 언로와 결정작성에의 참가 인원의 증대로 인한 政策決定過程의 기능적 개방성 내지 그 민주적 성격은 한편으로는 유교 그 자체의 展開또는 變質로 인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기도 하였으니 이와같은 제약은 조선 왕조 역사의 전개와 함께 점차 심화되어 갔던 것이다. 즉 그 제약은 儒學風이 治國論에서 思辨論으로 변질되어 유교적 정치 教義에 내포되었던 전기한 爲民思想이나 또는 言路開放과 같은 合理的 原理가 현실적인 實效性을 상실하게 된데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다만 이와같은 합리적 치국이론은 주로 재야의 士林들에 의하여 춘봉되는 데 불과하였던 것이다.⁽¹¹⁾

이와같이 조선왕조의 정책 결정 과정은 우선 개인적인 독단을 피하고 博詢採納에 의한 收議形式을 취하였기 때문에 언로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언로는 물론 민권소재를 인식한 민주적 사상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천하의 인민을 통치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소위 天子(또는 君子) 나아가서는 지배자의 현명을 보장하려는 유교적 정치 윤리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유교적 정치원리는 지배자의 선과 피지배자의 행복을 최대로 확보하려는 윤리성이 강하여⁽¹²⁾ 그것은 이론상 어느 정도 합리성을 토대로 하기에 조선 왕조의 유교적 정치과정은 다분히 합리적인 일면이 있었다. 즉 피치자의 행복을 제일의적인 정치 목표로서 존중하는 위민 사상과 여기에서 당연히 귀결되는 지배자의 윤리적 책임성은 지배자의 선과 현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로를 개방하였으며 언로의 개방에 있어서 衆愚⁽¹³⁾를 피하기 위하여 收議의 범위를 당대의 엘리트인 士林階級에

(10) 爲民思想은 儒教政治理論의 中心思想으로서 孟子의 民本思想이 그 中心이 된다하겠다(孟子 梁惠王篇).

(11) 玄相充, 朝鮮儒教史, 第二節 李朝初期儒學의 學問的 傾向, 서울, 民衆書館, 1949, p. 33.

(12) 玄相充, 前揭書 pp. 4-5.

(13) 金雲泰, 朝鮮王朝行政史, p. 206 近世篇, 博英社, 1970.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란 語句가 그것을 端의으로 示唆해 준다.

만 한정 시켰던 점 등이 그것이다.

다음 廟堂制에 계승되고 있는 민주적 유산을 살펴 보고자 한다. 廟堂은 軍國機務의 최고 결정 형식인 廟務를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로서 원칙적으로 의정부였으나 후기에는 備邊司도 그 임무를 겸행하게 되었다.⁽¹⁴⁾ 의정부는 군국의 大政 및 육조의 庶務를 의결 決事하게 되어 있다.

이때 의결은 合同 舉議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며 결사는 육조를 비롯한 하급 집행 기관의 행정을 결재 승인하는 형식인 것이다. 그리고 의정부의 모든 의결은 3인의 대신 즉 領議政과 左右議政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들 三相은 그 계서와 임무에 있어 우열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3인 정상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의정부의 서결(결재·승인)은 대부분 해당 大臣이 해당 舜人의 조언을 얻어 행하지만 중대사는 반드시 通議形式(合同議決)을 취했다. 이와같은 의정부의 통의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기에 후기에 이르러 비변사가 생기면서 3상단으로는 오히려 부족하여 각 분야에 걸친 文武班의 상급관료(당상관이상)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 소위 정부 堂上官들은 의정부의 상설 전임 직책은 아니나 각기 실무 집행 기관에 본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바 이들을 당대의 핵심적인 정책 기구인 備邊司에 참여케 함으로써 국정의 원활한 기능적 조정을 폐하였다 것이다.⁽¹⁵⁾ 즉 정부의 堂上에는 東班 西班이 골고루 배열되어 있을 뿐더러 또한 정책의 실무 집행 기관인 六曹의 長인 判書와 漢城府尹등이 거의例外 없이 정부 당상관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 과정에는 결국 文官과 武官의 의사와 더불어 실무 집행 담당자의 의사가 참작되고 통합 조절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서인 各曹 내부의 정책 결정과정을 보면 여기에도 합동 의결하는 만장 일치제가 통용되고 있었다. 즉 각조의 장인 判書와 차장인 參判 그리고 실무 행정관인 수명의 銓郎등의 舉議에 의해서만 각조의 정책이 결정되었기에 銓郎들의 발언권은 매우 커던 것이다.

다음 정책 결정 절차에 있어 민주적 유산으로서 광범한 收議形式을 담습하였다. 즉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國王의 御前會議나 重臣會議 같은 것을 소집하여 안건을 부의하고 거기서 실의 수의 또는 합의하는 형식을 갖추고 뒤이에 司憲府나 司諫院에서 가부를 논의하는 등 그 언로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국왕을 핵심으로 하는 專制體制 하에서나마 정책 결정에 있어 합동 토의 또는 합의와 같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던 것이며 그리고 조선 왕조 정치의 전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국왕의 治道와 善政을 호소한 政治 時事에 관한 수많은 上疏文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국정에

(14) 文獻備考(中), 古典刊行會, 서울 東國文化社, 4290年 p. 513 以下, 備邊司條.

(15) 備邊臘錄 27, 서울, 東國文化社, 4293. pp. 352-355. 乙卯 11月(1885년 11月)

議政府座目을 보면 堂上官이 總 62名이고 이중 東班 23名, 西班 39名이며 이 東班중에서 六曹判曹, 漢城府尹, 四都留守등 現職 重要 實務部署등이 參加하고 있음.

增補, 文獻備考, 東國文化社發行, 卷 216. 24面以下, p. 517 參考.

있어서의 언로 개방과 박순채납을 강조하면서 국왕의 독자적인 專斷을 경고한 내용의 것이었음을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리고 국왕이 정기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의례적인 정식적 형식으로서 視事와 經筵이 있었는데 전자는 정무를 위하여 후자는 정치적 講學을 위한 것으로서 모두 정책 토론의 형식을 갖춘 것이었다. 視事 중에서 가장 대표적 형식은 常參이었고 이 밖에도 정례적인 것으로 次對 그리고 임시적인 것으로 引見·召見등이 있었는 바 상참은 매일 의정부 宗親府 忠勤府 中樞府 儀賓府 敦寧府(이상 一品衙門) 및 六曹 漢城府(이상 二品衙門) 등의 당상관 전원과 다음으로는 言官인 司憲府 司諫院에서 각 일원과 경연의 당상관 당하관 각 2員이 輪次로 참여하였다. 次對는 賓廳에서 정책 결정 및 정사 토론을 위하여 국왕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순수한 정책 또는 정무 회의로서 이 御前會議에는 의정부의 대신과 정부 備局의 당상들이 참석하였다. 肅宗 24년부터는 언로를 넓히고 회의를 자주 하기 위하여 매월 6차로 늘리고(종전에는 3차) 그 중 3차는 原任大臣(前任大臣)도 참가시켰다.

또한 引見은 주로 次對와 같은 정례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긴급사가 있거나 혹은 토의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되었으며 그 참가 범위는 주로 협직 전직 대신과 정부 당상관들이었다. 그리고 召見은 국왕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관료를 면접하는 형식으로서 이는 주로 차대나 인견에 포함되지 않은 臣僚(卿大臣, 정부당상이외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經筵은 매일 아침·낮·저녁 3차에 걸친 三進講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 중 朝講은 常參과 병행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을 포함하였다.⁽¹⁶⁾ 참가 범위는 經學을 강론하는 講官이 중심이지만 성종조에서 特進官제도를 두어 文蔭武二品 이상의 일반 관원 중에서 特進官을 차출하여 경연에 참가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특히 이 특진관은 정부 육조 한성부 등과 같은 정책 결정 및 집행 기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차출치 못하게 함으로써 정책 문제 장론을 중시하였다.⁽¹⁷⁾ 또 中宗朝에는 三講時마다宰相 2인씩을 교대로 참가시켜 고문 역할을 하게 하였고 또 후기 孝宗朝에 와서는 經筵官 제도를 두어 草野의 高名儒林을 경연에 徵召參執케 하였고⁽¹⁸⁾ 肃宗朝에 와서는 武臣堂上까지도 참석시키는 등 朝野에서 대신과 諫臣을 널리 참가시킴으로써 그 言路範圍를 확대 개방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연은 유교의 經典을 통한 治道의 강론과 함께 일반 정무 및 在野의 風化까지도 논하는 폭넓은 강론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召對라 하여 이상과 같은 정규적인 三進講의에 國王의 하명에 의하여 주로 야간에 행해지는 강론이 있었는데 그 참가 범위는 강관 외에 대신 1員과 사헌부와 사간원 양자 중에서 1员이 참석한 제도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視事와 經筵의 형식으로도 언로가 오히려 넓지 못하다 하여 文宗朝 이후로는

(16) 前揭 文獻備考, 卷 220, 8面, p. 557.

(17) 前揭 文獻備考, 卷 220, 6面, p. 556. …至是復命 特進官…非會經, 政府六曹, 漢城府者勿抄…

(18) 前揭 文獻備考 卷 220, 3面, p. 555.

輪對制度를 두었는바⁽¹⁹⁾ 이는 매일 常參 및 朝講時 경연이나 상참에 참여하지 못하는 臣僚들을 輪次로 인대하여 수의토록 한 것이었다. 그참가 범위는 東班六品이상 西班四品이상의 관원으로서 매일 각 관청 차례 5인 이내로 윤회 참가케 했으며⁽²⁰⁾ 衛門에 속하지 않는 西班직 官員에게도 널리 참가를 허가하였다.

다음 전제적 경향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弘文館 司憲府 및 司諫院 등 소위 言官三司의 기능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사헌부는 時政을 논평하고 모든 관원을 감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일을 밝히며 외람한 행위와 허위의 언동을 금하는 등의 사무를 관장했고 사간원은 국왕에게 諫言하고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직무를 관장하였던 바 司憲府와 司諫院은 다 같이 언론의 간관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과 인사에 깊이 관여하였고 종친과 문무백관을 규탄함은 물론 국왕에 대해서도 언제나 솔직히 간언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았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기필코 王意를 움직이려 하는 경우에는 臺諫兩司가 합의한 의사로서 소위 兩司合啓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홍문관을 합하여 삼사의 합계까지 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合司伏閣이라 하여 兩司 또는 삼사의 관원이 일체히 궐문에 進伏하여 기어히 국왕의 聽從을 강청하기까지 하였다.

이와같이 사헌부와 사간원 등의 兩司는 언관으로서 언제나 왕에게 啓言함으로써 廡務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책 결정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署經 制度라 하여 모든 법규나 인사 또는 정책 형성 과정에 있어 형식상 절차로서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인준)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가부를 논의하는 양사의 서경을 거친 후 행정적으로 禮曹가 일관하여 해당 司에 입법이나 그 정책 결정을 통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²¹⁾ 그리고 사헌부의 의결 형식은 원칙상 完席僉議(전원출석과 만장일치)⁽²²⁾로 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언로의 기회가 줄어진다 하여 후에 完議席제도에 융통성을 인정하고 있고 臺諫은 一日兩啓로 하루에 두번까지 啓言하게 되어 있으나 繁急時는 몇 번이고 계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대간의 언론은 대체로 권위를 가진 것이어서 소위 종간여류(從諫如流)란 것이 군주의 중요한 德目이 되었고 한편 대간이 오래 말(所言)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소홀하다 하여 견책 과면되는 일이 憲宗 哲宗때 가끔 있었다.⁽²³⁾

그리고 弘文館의 직무 중에는 국왕의 고문에 대비하여 응하는 임무가 있어 왕의 측근에서 朝政의 득실을 論陳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經筵과 春秋館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進講이나 또는 史籍 관리와 史實 기록 등을 통하여 시정의 득실을 비판하고 직언하였던 것이다.

(19) 前揭 文獻備考 卷 220. 5面, p. 556.

文宗即位 以言路未廣 朝臣六品以上 皆許輪對 經筵引對逐日視事……

(20) 經國大典, 禮典輪對條, p. 266. 中樞院版.

(21) 經國大典, 前揭書, 禮典, 「立法出依牒式」 pp. 318-319.

(22) 前揭 文獻備考, 卷 219 5面, p. 550.

(23) 崔南善著, 朝鮮常識, 制度篇, 서울 東明社, 1948 pp. 28-31.

다음 조선 왕조에 있어 민의창달을 위한 제도로서 直訴制 上疎制 示威 등이 있었는데 申聞鼓는 請願 上訴 및 고발 등의 직소제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먼저 서울의 主掌官이나 지방의 관찰사에게 청원을 하여야 하며 그래도 소원이 풀리지 않으면 사헌부에 고소할 것이며 그래도 또 유감이 있다면 신문고를 두드리라는 것이다.⁽²⁴⁾ 그리고 이 청원은 정치 득실과 민생 휴戚(民生休戚)을 내용으로 할 수 있었지만 실제적 효능은 민의창달 보다도 관료의 발호를 억제하는 효용을 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上疏制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된 실효성 있는 정치의자투입 방식이었다. 상소는 원칙상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으나 실제로는 현직자 전직자 및 士林이 중심이 되어 이용한 문서를 통한 下意上達 방식이었다. 현직자에게는 국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던 관계로 덜 비판적이었지만 전직자의 재야 유림들에게는 날카로운 비판으로서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상소문은 國王에게 直結되지 못하고 반드시 承政院을 거쳐야 했으며 承政院에서는 그 内容이나 形式에 관하여 일단 事前檢討를 한 다음에야 국왕에게서 登徹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이다.⁽²⁵⁾ 그러나 상소는 원칙으로 登徹되어야 하며 등철한 상소는 반드시 王이 批答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여하간에 조선조 전왕조를 통하여 명실 공히 상소는 개인의 언로로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수단이었고 그것에 의한 국정에의 영향도 실로 막대하였다.

다음 政治的 統制의 한 遺制로써 伏閣, 伏闕 捲堂 및 叫闈등이 있었고 또 地方社會에는 各種 地方自治的 組織이 發展하여 民主的 社會基盤을 形成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몇 가지 地方遺制로서 守令이 土着의 鄉班을 鄉任으로 任用하여 顧問 또는 補佐役으로 삼고 管內의 監察과 民意伸張의 任務를 띠게 한것이며⁽²⁶⁾ 또 守令은 地方의 名望家나 前職品官등을 顧問으로 任用하여 뒤에 留鄉所 또는 鄉所(또는 鄉廳)이란 制度가 形成되었으며⁽²⁷⁾ 이 鄉所와 密接히 關聯된 것으로 鄉約이 있어 地方鄉村의 自治的 機能을 수행하고 社會生活의 勸善懲惡과 相扶相助등 良美한 民風을 振作하는데 크게 寄與하였다.⁽²⁸⁾

以上에서 우리는 朝鮮王朝에 있어 民主的 遺產에 관하여 論하였으나 勿論 이와같은 合理的側面도 儒教 그 自體가 갖는 理論的 限界性과 社會制度上의 矛盾性 및 政治文化面의 頑固한 守舊的 執着性등으로相當히 그 効能이 制限되었음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4) 經國大典, 刑典訴冤條, 太宗代에 設置되었음. 韓治勛, 申聞鼓의 設置와 그 實際的 効能에 대하여,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pp. 357-408.

(25) 前揭 文獻備考, 卷 218, 17面, p. 546.

(26) 金雲泰, 朝鮮王國行政史, 博英社, 1970. 第二章 第一節(三)参考.

(27) 柳洪烈, 朝鮮鄉約의 成立, 震檀學報九, 昭和 13年 7月, pp. 86-105. 文獻備考 職官考 22. 前揭書, p. 743.

(28) 柳洪烈, 朝鮮鄉約의 成立, 前揭書, pp. 107ff. 丁若鏞, 牧民心書, 卷之二十一敎民.

四. 士林派의 政治思想

士林派중에서도 여기서는 各時期의 思想을 代表한다고 볼 수 있는 金宗直, 金時習, 趙光祖 및 李滉, 李珥등의 政治思想을 通해서 政治文化의 繼續性關係를 검토하고자 한다.

王朝交替後 主로 變節者들의 出身이었던 勸舊派와는 對立抗爭한 势力으로서 鮮初에는 不仕한 사람들의 後裔이며 世祖篡奪當時에도 參與하지 못하다 그 以後에야 비로소 점차 中央政界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른바 執權官僚派인 士林派가 있었는바 이는 嶺南地方을 中心으로 한 在野政治勢力으로서 그 領導者 金宗直(1431~1492)에 의하여 代表되었던 것이다. 이들 金宗直을 中心으로하는 势力은 儒教統治理念과 實際間의 矛盾이 發生하기 시작하자 儒教統治方法의 修正強化를 主唱하면서 自派勢力を 擴張하고 勸舊派에 思想的으로 對抗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勸舊派와 士林派間의 對立은 時代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爳烈한 樣相을 뛰우게 되어 마침내 四大士禍(戊午, 甲子, 己卯, 乙巳)와 分黨(四色分黨)을 招來하는 실마리가 되었던 것이다. 士林派의 學問傾向은 「道學」과 「詞章之學」으로 알려져 있으나 金宗直의 思想은 아직 學究의 詞章之學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金宗直은 政派로서는 士林派이지만 結局은 王權篡奪을 是認하고 篡奪政權에서 官職(兵曹判書)에 從事하였던 점에 비추어 既得權옹호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는 對照的으로 金時習은 政派로는 節義派이나 역시 王權찬탈을 反對한 不仕派이기 때문에 兩者는 思想面에서도 크게 對照가 된다.

金宗直은 篡奪로 말미암아 君·臣秩序 및 班·常秩序가 폐란되고 잇달은 叛亂 및 政變의 結果 民生이 피폐하였던 世祖初의 政界에 投身하자 倫理秩序를 바로잡아 政治安定을 期하고 동시에 친탈體制의 正當化를 위하여 仁政思想을 고취하고 이를 통하여 在野士林의 政界進出을 保障받고자 한 것이다. 그는 儒教의 封建倫理의 政治思想을 援用하여 君臣, 父子, 長幼, 夫婦, 朋友間의 儒教의 五倫을 바로 세울 때 四民이 각기 安分하게 되고 이러한 差別의 身分秩序와 倫理를 確立하기 위하여 庶民에 대한 「仁政」을 要求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仁政論은 勿論 治者的 立場에서 不安定한 君臣秩序를 確保하고 政治의 安定을 이룩하며 反正을 契機로 이제까지 疎外되어온 士林派의 政界進出을 피하려는데 政治的 意圖가 있었으나 이는 金時習이 庶民의 立場에서 社會現實에 대한 批判, 新政權에 대한 露骨의 不滿을 表示하고 農民의 利害를 대표하여 重民思想을 주장한 것과 對照가 된다 하겠다. 이점은 金宗直이 庶民生活과 直結되어 있는 天文, 地理, 陰陽, 醫藥 등을 雜學이라 하여 度外視하고 오직 詩史 만을 儒者의 本業이라고 主張한 것을 보아도 理解될 수 있고 또 그는 鄉間의 風俗이 각박하고 治政이 옹색한 原因이 全的으로 學校에서의 孝悌忠信等 儒教道義에 대한 教育의 未備에 있다고 본⁽²⁹⁾ 그의 教育理念에서도 貴族主義의 權益擁護策을 읽을 수 있는 것

(29) 佔畢齊集, 卷一 與密陽鄉校諸子書.

이다.

한편 梅月堂 金時習(1435~1493)은 反政權的 立場에서 財政에 대한 批判的暴露에 바탕을 두어 班常的 倫理秩序나 儒教統治體制自體에 대한 批判的인 政治思想과 農村慘狀에 대한 否定的 社會現實觀을 들어내고 있으며 그러나 賢族의 差別倫理秩序의 根本的改革을 要求하지는 못하였음은 그가 處한 時代的 背景에 비추어보아 不可避한 制約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점 그가 「名分說」에서 「人間에게 있어서 名分은 大原則이다…名이란 天子, 諸侯, 公卿, 大夫庶人等 身分을 말한 것이고 分이란 上下尊卑 貴賤등 身分間의 差別을 말한다」⁽³⁰⁾고 함으로서 身分上 差別을 是認하고 있는 점으로도 알수 있다. 다만 그는 被治者인 庶民의 立場에서 이러한 倫理를 認定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 하겠으며 또 그는 「愛民義」「生財說」 등에서도 「王에게 중요한 것은 百姓에 대한 生財와 이의 節用을 仁義로 삼아 百姓의 福利를 도모하는 것」이라하여 庶民의 利害를 代辯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庶民의 權益을 確保하고 重民을 具現하는 政治의 이데올로기로서 所謂「一氣」의 宇宙變遷論과 進化論의 歷史觀을 提唱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朱子學의 一理說 즉 「理先在氣後生」의 理一元論의 太極說에 反對하고 事物의 變遷이 있기 때문에 그 變遷의 法則性인 理가 있게 마련이라는 「氣實在 理後生」의 氣一元說을 主張함으로서 老莊學의 傾向을 놓 후하게 떠우고 있는 것이다.⁽³¹⁾ 또한 그는 封建原理의 不變性을 土臺로 復古主義를 주장하여 封建體制의 修正的持續을 주장하는 史論에 반대하여 進化論의 歷史論을 展開한 것이다. 이와같은 社會改革의 宇宙變遷論과 進化論의 立場에서 그는 愛民과 無關한 天神祭의 形式主義를 배격하고 鬼神의 存在를 否定하여 反巫說을 주장했으며 庶民福利나 社會安定과 無關한 諸風俗도 反對했고 風水說이나 極樂地獄說 같은 것도 反對했으며 易의 占筮의迷信에도 反對했다.

以上論述한 바와같이 金時習의 思想과 態度는 金宗直의 그것과는 매우 對照的임을 알수 있다. 兩人은 當時의 執權貴族官人인 勳舊派의 暴政을 배격하였던 점에서는 類似한一面을 보여 주지만 각者の 政治目標과 政治方法에 있어서는 매우 對照的이었던 점이 注目된다.

다음 靜菴 趙光祖(1482~1519)의 道學 및 「衡平」政治思想의 命脈에 관하여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그는 君主가 獨治를 하지 않고 大臣에게 政事를 맡긴 後라야 政治가 바로 설 것이라고 주장하여⁽³²⁾ 治者層內의 權力의 再分配를 위한 새로운 君臣關係의 秩序를 確立하려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武力政治를 反對하고 仁義・政治를 강조하였다. 이것이 그의 封建體制下에서 王의 政治的態度를 定立하려는 王道政治論으로서 특히 그의 道學政治思想이라고理解될수 있다. 孟子가 王의 政治目標과 政治態度의反省을 促求하였듯이 靜菴도 治者

(30) 梅月堂文集, 卷五 名分說.

(31) 梅月堂은 半儒半佛的生活을 하였으며 그의 根本思想은 儒教에 있으며 佛教를 兼跡하였다는 主張도 있다.(李丙燾, 資料 韓國儒學史草稿, 第三編 朝鮮時代之儒學 39面).

(32) 「敬大臣而任其政也 未嘗獨治 而必任大臣而後治道立焉」靜菴先生文集, 卷二 謴聖試策 乙亥.

인 貴族 官人的 지나친 權益追求가 貴族間의 派爭을 激化시키고 民生의 困窮을 招來하고 있는 當時의 社會不安을 是認하였기 때문에 孟子의 王道論을 援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는 孟子의 王道政治論을 「衡平」政治思想으로 修正하고 王과 官人貴族間의 權力均衡을 促求하고 있는 點이 特徵이라 하겠다.

따라서 靜菴의 仁政論은 復古主義立場이 아니고 修正的 現實主義라고 볼 수 있으며 그는 封建體制의 根本的改革에는 反對하였지만 現實的必要上 補削할수 있다고 하였다. 또 그는 國家經費를 줄여 國民負擔을 輕하게 하는 것이 治者의 愛民의 길이라고 하고 또 「君臣者爲民而設也, 上下須知此意, 畫夜以民爲心, 則治道可成」⁽³³⁾이라고 함으로서 愛民하여야만 體制保衛의 治道가 可能하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百姓을 위한 民本의 政治思想을 강조하고 「天과 人은 본래 하나(一)이기에 天은 人에게 그 理가 없을수없고 君과 民도 본래 하나(一)이기에 君도民에게 그 道가 有을 수 없다…무릇 君臣이란 것은 爲民때문에 있는 것이니 모름지기 上下가 이뜻을 알아차리 밤낮으로 百姓들로서 자기마음을 삼을때 비로소 政治의 道는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勿論 그의 「衡平」 또는 民本思想은 本質的으로 治者와 被治者間의 平等을 意味한 것이 아니고 新進士類와 既成士類間 貴族內部의 势力均衡을 주장함으로서 自派勢力의 權益擴張을 企圖한 點도 看過할수 없는 것이다. 이점이 그가 道學政治論에 의거한 制度改革을 주장했음에도 不拘하고 執權動舊勢力의 反擊을 받아 挫折되어 除去당하는 原因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 退溪李滉(1501~1570)은 전형적인 士林家門의 出身으로서 儒教의 官人支配體制가 지닌 矛盾과 不條理를 正面으로 問題삼기 보다는 現實的 脆弱性을 補完하려는 立場에서 그의 樂觀的인 社會現實觀과 中央集權體制 및 等殺倫理強化의 政治思想 또는 理氣說이란 宇宙變遷論과 人性論등이 展開되었다.

우선 그는 當時 貴族의 혹독한 수탈과 農漁民의 慘狀보다는 農漁村社會의 田園的 趣向을 睿美하고 現實을 樂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³⁴⁾ 이러한 그의 態度는 班常倫理의 秩序의 素亂을 沖止하고 既存의 倫理秩序를 强化 再確立하려는 立場을 반영한 것으로 여기서 그는 等殺倫理를 定立하는 것을 政治目標로 삼게되었고 이를 天理로 規定하는 政治思想을 낳게 한 것이다.

그는 「循天理之公, 或循人欲之私, 善惡之分由茲而決焉」⁽³⁵⁾이라 하여 統治規範은 人間이 준행 할 「天理」로서 普道原理이며 이를 登揚하는 것이 合範的이며 義요, 善行이라고 보았던 것이며 이와 反對로 社會成員의 利己追求는 「人慾」으로서 人間이 抑制하여야 할 生活態度이며 反範的인 私이요 惡行이므로 이를 排斥할것을 要求하였다.

(33) 靜菴先生文集 卷三 檢討官時啓文.

(34) 그의 「四樂」詠은 10室 9空의 不合理한 農漁村의 現實을 度外視하고 理想的인 農漁村을 謳歌한 것이 있다(退溪先生文集, 續集 卷一詩 寄題四樂亭).

(35) 前揭書卷八 離著 天命圖說 第八節 論意機善惡.

退溪는 이와같은 倫理秩序의 確立을 政治行政으로보고 이 統治倫理의 強化를 위하여 「鄉約」을 設定하고 「戊辰六條疏」를 王(宣祖)에게 進言하였던 것이다. 鄉約은 反範者에 대한 責罰則을 規定한 것이며 六條疏는 君臣, 上下, 父子間의 階序的倫理關係를 강조한 것으로 이 것은 바로 栗谷이 그의 「六條啓」에서 當時의 急迫한 現實狀況을 감안해서 百姓爲主의 人事, 國防 및 安民에 관한 改革方案을 提示한 점과 對照가 되는 바이다. 이렇듯 退溪는 班常倫理에 根據해서 王과 官人의 中央集權的 官人統治에 대한 被治者의 無條件 順從을 要求하는 統治秩序의 確立을 主張한 것이며 그는 天無二日, 民無二王이라 하여 國王權을 강조하고 또 「人主者, 一國之元首也, 而大臣其腹心也, 臣諫其耳目也」⁽³⁶⁾라고하여 이는 王, 大臣, 臣諫 등 治者層은 國家의 中樞로서 一身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百姓의 反抗과 不平不滿이 不可함을 暗示한 것이라고 볼수있는 것이다.

한편 退溪는 그의 이러한 政治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理氣說과 人性論을 展開하였는데 그의 理氣說은 老莊思想을 採用한 反朱的 政治思想을 비롯하여 官人統治體制의 變革을 要求하는 모든 政治理論을 배격하고 趙光祖等 道學의 政治理論을 보강하면서 그의 自身의 宇宙變遷觀을 밝힌 것이라고 할수 있겠다. 退溪는 「天地之間에 有理有氣한다」고 함으로서 賴庶의 共在와 理氣의 共在關係를 是認하고 存在論의 으로는 理氣 二元論을 生成論上으로는 理氣互發說을 提示하면서 理 없이 氣가 在立할 根據가 없는 것같이 等殺原理(理)가 先在하고 있는限 現實政治上의 身分秩序는 不可避한 當爲라고 規定함으로써 官人政治體制를合理화시키고 있다.

또 그는 人性論에서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을 區別하고 本然之性은 平等하지만 氣質之性으로 現實의 差別이 있게 되며 즉 氣質之性이 清한 者는 上智요 知行이 兼合한 貴族이며 中한 者는 中人으로서 知는 있으나 行이 不足한 者이며 濁한 者는 下愚奴隸로서 愚知行使者라고 三等別하였다.

以上에서 論及한 退溪의 朱子學의 修正論에 대하여 嚴症을 느끼고 날로 긴박해지고 있는 內外의 危機속에서 危機狀況을 自覺하고 그 克服을 위한 社會改編의 政治思想이 대두하였으니 그 代表的人物이 栗谷 李珥先生이었다.

栗谷李珥(1536~1584)는 安民을 바탕으로 貴族이 아니라 百姓의 立場에서 社會現實을 批判하고 그의 救國 및 安民의 政治思想과 政策論을 提示하였다. 이러한 現實觀에 立脚한 그의 政治思想과 政策論은 無批判的으로 中國의 政治思想 및 政策論의 借用에 沥汲한 保守的思想에 대한 批判的 自意識을 土臺로한 獨創的 理論이었다고 볼수 있으며 그의 政策論도 貴族官人統治體制의 補強을 위한 修正이 아니라 保國安民을 위한 社會改編論이었으며 이러한 見地에서 그의 思想은 後世에 대두한 實學運動의 先驅의 役割을 한 것이었다.

栗谷은 退溪에서와 같이 倫理秩序의 確立을 政治目標로 삼고 三綱五倫을 不變의 統治規

(36) 上揭書 戊辰六條疏 其五.

範으로 認定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어떤 既得權의 保衛와 新權益의 爭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被治者의 立場에서 庶民個體의 自存과 10萬養兵을 통한 韓民族個體의 保衛를 위하여 理論과 政策을 展開하고 있는 점에 特徵이 있다하겠다. 그는 三綱五倫 같은 倫理道德은 絶對不變의 規範으로서 全面廢棄가 不可能함을 認定하지만 變通할수 없을 때 改革하려하고 變通하려 할때 굳게 固守하려는데서 政治의 安定이 적고 變亂이 많게 된다고 했으며 따라서 官人統治體制自體의 改革을 要求하는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狀況에 따라 安民과 保國을 目的으로 한 行政體制의 改造가 政治의 基本課題라고 보았고 그에게 있어서 王과 吏僚는 安民保國을 위한 機能的存在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 그에 의하면 「배가 고파 먹어야 할때 먹고 추워서 입어야 할때 입으려고 하는 것은 王도吏僚도庶民大衆도 마찬가지이므로⁽³⁷⁾ 이것(人心 즉 人慾)은 個體의 一般性으로서의 理이고 王, 吏僚,庶民은 保國安民을 위한 行政秩序上의 機能的 個體性(氣)이라는 것이 栗谷의 이론바「理通氣局」의 意味이 있다고 할 수 있다. 栗谷은 徐花潭의 反朱學의 老莊思想을 바탕으로 한 反封建的 氣一元說도 退溪의 帝王學의 理氣說도 批判하면서 그의 獨創의 第三의 學說로서 「理通氣局」說 즉 氣發理乘說을 主唱하였는바 여기서 理通氣局은 마치「角器와 圓器는 각각相異하지만 그러나 器中水는同一하다」고 비유한 바와같이 各個體는 그 外形的形態面에서各己다르지만各自 自存의 原理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同一하다고 본 것이며 이는 곳個人 및 個民族이 그 形態面에서 特殊性을 가졌으나 自存의 「理」를 가지고 있으므로 個體中心의 安民과 民族의 主體性을 確保하기 위한 政策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다.

다만 栗谷은 國家體制의 根本的改革이 無數한 挑戰에 直面할 것을 自意識하였기 때문에 現實政治問題에 대해서는 行政體制의 改革을 통한 體制의 漸進的方向轉換을 志向하고 道德政策에 있어서는 王, 貴族, 庶, 奴間의 差別的 倫理規範을 是認하고 있는것은 當時社會가 處한 歷史性, 現實性에 대한 自意識과 危機에 處한 社會現實에 대한 救國의 一念에서 이들간의 大同團結이 必要했기 때문이었다고 보는것이 妥當할 것이다.

栗谷이 儒教의 官人支配體制의 矛盾과 危機를 直視하고 朱子儒學을 비롯한 中國의 政治思想의 僞學性과 虛學性을 銳利하게 解剖하여 經驗的 實證主義의 立場에서 展開한 獨創의 主體的 政治論은 그의 國是論에서 明白히 나타나고 있다. 즉 그는 「人心이 모두 그러하다고 同意하는 내용이 곧 公論이다. 바로 이 같은 公論이 所在하는 곳에서 國是는 이루어진다. 그리기에 國是는 온나라안 사람들이 꾀함이 없이도 다같이 옳다고 同意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하였다.⁽³⁸⁾ 이 國是論은 16世紀 士林들의 政治文化의 民主的 傳統으로서 韓國政治史에 萬民의 同意를 강조하는 政治傳統으로서 繼承되고 있는 것이다.

(37) 栗谷先生全書 卷十四, 人心道心說

(38) 栗谷全書 卷7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以上 論述한 士林派 論者등의 政治思想에서도 우리는 親和思想 為民思想 人本的平等主義思想, 改革思想 및 民主的遺產등의 古來의 傳統的 政治思想의 命脈이 흐르고 있고 나아가서는 時代와 社會의 變遷에 따라 再創造되고 發展하여 莫衷一是을 알수 있다.

五. 實學派의 政治思想

壬亂以後 17·18世紀에 걸쳐 朝鮮朝의 政治, 經濟, 社會등 모든 環境的狀況은 크게 變動하여 統治體制는 그 正統性의 基盤을 상실하고 無能力을 露呈하였다. 즉壬亂은 國土의 賽化와 土地制度, 財經制度 및 統治制度의 문란을 가져왔으며, 그리고 生產力의 激減과 權門勢家의 苛歛誅求는 民生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身分制度도 점차로 解弛해졌다. 이로써 官人支配體制는 根本的으로 붕괴해 가는 過程을 밟았으며, 政治文化的인 側面에서 볼 때 為民政治와 王道政治를 기본으로 하는 朝鮮王朝의 傳統的인 政治文化의 變質, 타락을 초래하고야 말았다.

그것은 朝鮮朝의 傳統的인 政治理念이 이미 激變하는 社會現實을 引導할 수 있는 機能的인 「에너지」役割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이와같은 政治理念과 社會現實間의 錯闇無解는 간격은 實學派의 政治理論이 朱子學的政治理念이라는 理論이나 또는 士林派의 政治理論 그 自體보다도 朝鮮朝의 社會經濟的 狀況에 기반한 現實的인 變動 또는 理由에 보다 더 많이 緣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절박한 社會狀況下에서 社會의 全面的인 改編없이는 國勢를 만회할 수 없게 되었으며 여기서 在野學者들 사이에서는 經世濟民을 重視하여 社會現實을 批判하고 理想的 社會改編을 為한 그들의 理論을 활발히 展開시키기에 이르렀고 일부 官僚層(例컨데 李元翼(1547~1634)이나 金堉(1580~1658)등의 大同法實施運動)에 있어서도 시폐를 거론하여 그 匡救策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또 당시 庶民大眾의 慘相을 直視하는 가운데 個體自存意識, 人間意識 또는 平等意識을 覚醒하게 되고 經濟的 價值와 現實的 實利를 追求하는 學究的 努力이 대두했던 것이다. 따라서 18世紀에 무르익었던 新學風으로서의 實學은 知識의 擴大나 天主教를 비롯한 西洋文化의 영향으로 인한 學問的인 反省이 큰 契機가 되었음을 看過할 수 없겠으나 그 보다는 오히려 절박한 社會現實에 결부된 自主的政治 意識의 발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社會를 지향하기 為한 社會改編理論으로서의 發展的인 性格을 내포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절박한 자기들 社會를 持續, 適應, 또는 維持시키기 위한 社會保存 또는 適應意識으로서의 復古的인 性格과 연결된다. 前者の 性格은 現存秩序를 批判하고 새로운 秩序를 모색하려는 改革的 精神으로 社會改革을 提唱한 당시 社會價值에서 소외되었던 南人學者나 中人 및 庶孽등 소위 限界人物들에 의한 實學理論에서 內包되었으며, 後者の 性格은 社會保存原理가 民族的인 主體性과 結附되어 自主意識을 再創造하려는 國學派 實學理論에서 確認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實學은 절박한 社會現實을 타개하기 為한 機能的인 社會改

編理論과 그리고 自主的인 歷史意識의 發動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 新學風成立의 共通의 精神基盤은 自由性, 科學性, 實現性 또는 實用性과 實踐性 등으로 要約될 수 있겠으며 이들 諸要因이 西歐文化의 基調와 相通하고 있음은 偶然한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³⁹⁾

實學의 新學風이 封建社會의 諸現象이나 儒教의 政治文化에 대한 회의와 反抗의 產物이기는 하지만 儒教를 근거로 하는 集權的 封建社會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復古的性格을 내포하고 있었다. 무릇 實學이 갖는 復古的 性格은 社會保存을 為한 主體性的 再認識過程이며 한편 實學이 표방한 批判精神과 改革理論은 곧 새로운 歷史段階를 창조하기 위한 歷史推進의 새로운活力素였던 것이다.

實學派는 크게 百科辭典派와 國學派 및 北學派등 三個學派로 區分할 수 있다.⁽⁴⁰⁾ 百科辭典派는 芝峰 李睂光(1563~1628)(芝峰類說), 星湖 李瀨(僅說) 茶山 丁若鏞, 磻溪 柳馨遠, 朴世堂, 洪萬選, 徐有榘등으로 代表되며 重農主義學派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學究의 關心을 전반적인 다양한 社會現實問題에 돌리고 重農思想에 立脚한 天文, 地理, 經書, 土地制度, 官制, 學制등 廣範한 社會制度改編案 또는 理論을 提示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었으며 芝峰類說이나 磻溪隨錄 또는 星湖僅說등 百科辭典的 著述을 남기고, 이들의 思想과 學風은 後日의 國學이나 北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前述한 重農主義의 經世致用과는 그 學風을 달리하는 또하나의 實學의主流가 形成되었는 바 이들 이른바 北學派는 技術導入論을 中心으로 하는 重商主義의 產業論을 提起하고 利用厚生을 強調하였다. 즉 產業의 진흥, 技術의導入을 通한 手工業의 發展, 生產道具와 流通手段의 開發등을 그 理論의 中心으로 삼는 者들로서 柳壽垣(1694~1755), 朴齊家(1750~1805), 洪大容(1731~1783), 李德懋(1741~1793)등 實學派學者들이 이에 屬하며 이들은 가령 儒教의 職觀이나 身分觀을 脫皮하는데 있어서 重農의 實學派들 보다도 더욱 밀접하게 近代思想에 接근하였으며 身分階級의으로 不幸한 庶孽出身이 많았다.

實學風이 發展시켰던 이상과 같은 兩大主流外에 또하나의 刮目할할만한 경향은 學問의 對象과 關心을 韓國自體에 돌린 自主的이고 主體的인 學究傾向으로서 이른바 國學派이었다. 實證主義思潮와 歷史意識의 高潮를 契機로 李瀨의 批判的이고 自主的인 韓國史의 體系化가 提起된 以來로 安鼎福(1712~1791)(東史續目, 1790)은 종래까지의 中華的世界觀이나 中國中心의 植民史觀에서 벗어나 韓國史自體의 正統性과 獨自性위에서 主體史觀을 體系化하였다. 이러한 主體史觀의 定立은 安鼎福, 丁若鏞을 비롯하여 韓致淵, 李肯翊, 柳得恭등에 의하여 시도되었으며 나아가서는 李重煥, 申景濬(疆界考, 道路考, 山水考) 丁若鏞(疆域考)등에 의하여 地理나 疆域問題로도 擴大되었고 實제 담사로 작성된 金正浩의 大東輿地圖, 鄭尙冀의 東國地圖등의 作品도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國學의潮流는 國文, 語文等 分野에서

(39) 拙著 朝鮮王朝行政史(近世篇) pp. 220-234. 博英社 1970.

(40) 上揭書, pp. 235-240.

도 나타났으며 申景濬의 訓民正音韻解, 柳僖의 諺文志, 物名考등도 나타나 마침내 文化的自我意識의 覺醒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다.⁽⁴¹⁾

무릇 實學에 있어서 이와같은 國學的自覺은 李瀨, 安鼎福, 丁若鏞으로 연결하는 學淵이 그 中心을 이루었고⁽⁴²⁾ 따라서 그것을 近畿의 重農主義實學派가 그主流를 形成하였다. 한편 都市中心의 重商主義的實學派인 北學派도 그 궁극적 목적의 清朝의 讀揚이 아니라 朝鮮朝 그 자체의 活路開拓이었다는 점에서 北學의 精神도 결국은 國學的潮流에 合致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國學的自立・歷史意識은 韓民族의 民族的個別性을 確認시키기 위한 過程으로서 個別民族의 自主性을 基盤으로하는 近代精神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와같은 近代化의 意識的努力이 원활히 계속되어 結實을 보지 못하였기에 韓國의近代화도 그만큼 지연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文運의 爭勝을 기하고 中興의 노력을 傾注하였던 英・正朝以後부터는 戚族이 政治的으로 得勢하여 발호하게됨으로써 國政의 腐敗와 混濁을 조장하게된 것이며 이를바 王道政治의 基本理念도 王朝後期에 이르러 점차 變質되어 霸道로 通하는 政治形態로 타락하였던 것이다. 本來 世道政治는 君主의 信任이 두터운 臣下가 治政을 委託받아 天理를 밝히고 人心을 바로 잡으며 異端을 배척하고 儒道를 宣揚하여 治世의 大道를 實踐한다는 것을 基本理念으로한 것이었다. 그러나 正祖代에 「世道宰相」洪國榮은 一個의 戚臣으로서 國王의 각별한 총애를 저버리고 世道아닌 勢道로서 政權을 농란하고 不正과 不義의 罪根을 後世에 남겼으며, 특히 純祖以來 3代 安東金氏 戚族輩의 勢道政治발호로 王權은 破壞하고 官人支配體制는 變質, 타락할 수 밖에 없었다.

六. 近代的國家意識의 萌芽

우리民族에게 近代的 國民意識과 더불어 近代的 國家意識을 심어주는 契機를 만들어 준 것은 朝鮮王朝後期에 이르러 天主教의 傳來와 함께 近代的 產業力과 技術文明을 갖춘 歐美列強勢力의 東漸이 있었던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와같은 西勢東漸은 日本등을 앞세워 結局 開國을 몰고왔으며 이 開國을 契機로해서 우리民族은 國際社會에서 하나의 統一的政治單位로서 自覺을 하게 되고 이로 因하여 民族的 긍지와 더불어 한 民族國家의 國民으로서 政治的 統一體意識을 漸次 自覺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朝鮮王朝의 執權層은 慕華思想과 儒教的 名分論에 執着하고 있었기 때문에 所謂 衛正斥邪의 擱夷論을 내걸어 外勢의 壓力에 對應하였다. 이는 결국 異質的인 歐美文明에 대한 文化的인 危機意識과 그리고 그들의 優越한 武器를 背景으로한 軍事力이 當時 韓國中國을 비롯한 東亞各地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던바 이러한 軍事的 侵略에 대한 危機意識

(41) 上揭書 p. 240.

(42) 李佑成, 李朝後期 近畿學派에 있어서의 正統論의 展開(歷史學報 三十一輯, 1966), pp. 174-177.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과의 交易이 우리의 經濟的 侵奪을 招來케 한다는 經濟的 危機 意識 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와같은 列強들의 韓半島進出에 즈음하여 自覺된 危機意識에서 韓民族으로서의 自主自立意識을 갖게되었고 이러한 自主自立意識은 마침 日帝가 韩半島에 上陸함에 이르러서는 강력한 反外勢의 抵抗力を 發揮하여 義兵運動의 原動力이 되기도 하였으나 한편 尊華攘夷思想에 매몰되어 實學運動을 저지하고 西學彈壓政策으로 實學者들의 近代志向의 西洋研究와 西洋의 科學技術研究의 導入을 阻止하는 逆機能으로 作用하기도 하였다.

한편 西勢의 東漸과 함께 西歐의 各種 利器文物과 近代科學 圖書등이 소개되고 天主教가 傳來되어 迫害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그 本格的인 布教가 開始됨과 아울러 新學風으로서 實學運動이 展開됨으로서 近代의인 外來 및 國學思想은 指導層은勿論 널리 民衆에까지 깊숙히 전파되었으며 一部에서 開化思想이 提唱되는 가운데 마침 우리보다 앞서서 西歐化의 길을 걷게 된 日本은 雲揚號事件을 일으켜 韓國을 開國하게 이르렀다. 여기서 從來의 衛正斥邪主義는 그 實効성이 없음을 露呈시켰고 이에 따라 事大字小의 國際觀과 斥邪的國防觀을 克服한 現實主義의 國際觀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現實的 國際觀은 自主的開國論을 내세우게 되었으며 外勢로부터 獨立을 維持하는 方法은 富國強兵과 國民의 統合이라는 課題를 自覺한 나머지 이런 課題를 표방한 改革運動이 具體化되어 甲申政變이 勃發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甲申政變에서 보다시피 具體的으로 制度改革論이 대두되는데 이는 東道兩器라는 穩健한 西採開化思想의 展開에 있어서 점차로 技術과 價值 또는 手段과 目的是 결코 別個의 것이 아니고 同一한 事物의 表裏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產業化에 의한 富國強兵을 도모하는 洋務論과 政治, 經濟, 社會의 諸側面에 있어서 制度의 改革을 企圖하는 改革論이 同一한 時期에 있어서 獨立과 統合을 目標로해서 相互關聯해서 補完的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君主의 開明에 의한 위로부터의 改革을 試圖한 甲申政變이 挫折되자 朝鮮王朝의 國家的正統性은 더욱 크게 훼손되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렇듯 당시의 執權層이 內外의 危機에 부딪쳐 國家의正統性의 危機를 克服하지 못한 채 保守의 길에만 執着하고 있는 가운데 農民大衆은 그들의 政治意識을 啓發하고 近代的 民族運動을 담당할 主體로서의 力量을 培養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이들을 主體로하는 밑으로부터의 改革運動이 展開되었으니 바로 1894년의 東學農民蜂起가 그것이다.

東學運動을 통해서 나타난 國家意識은 西洋勢力의 東漸에 反撥함과 아울러 傳來의 中華主義意識도 脫皮해서 韩民族의 主體性을 自覺하여 補國安民을追求하려는데 焦點을 두었던 것이다. 그것은 즉 外部로 부터의 危機에 對處해서 國家의 自主獨立을 保全하고 나아가서 變質된 集權的官人支配體制에 저항하여 民衆을 특히 農民大衆을 封建的 框檣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데 있었다. 이렇듯 東學運動은 所謂外勢의 侵略에 抗拒하고 封建的收奪에 反對했을 뿐더러 所謂人乃天平等思想의 社會의 具現化를 피하여 嫡庶의 差別廢止와 奴婢文書

의 燒却을 주장하는등 社會身分解放을 표방하고 農地의 平均分作을 내세우는 經濟的平等 까지도 주장하였다. ⁽⁴³⁾

또한 1893년의 報恩集會에서는 「反倭洋倡義」의 政治的要求가 集合의 口號가 되었으며 1894년의 全州和約은 外國軍隊의 派兵앞에서 東學黨과 政府軍과의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同和約에서 東學軍이 提出한 弊政改革案은 國家와 民族의 獨立를 전제로 支配體制의 調整과 安民을 圖謀한 것으로 여기서 특히 日本人과 密通한 者를 嚴罰에 處한다느니 또는 道人의 政治的 協力を 要求한다는등의 條目은 民族的 自主性과 一般民衆의 政治參與까지도 制度化할 것을 示唆하는 内容으로서 注目이 된다. ⁽⁴⁴⁾ 이러한 要求들은 事實上 結實해서 全羅道의 몇개 지역에서 執綱所라는 機關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東學革命이 外勢의 壓力으로 좌절된후 大衆의 基盤을 擴大하면서 開化運動이 教育과 言論 등을 통한 民衆運動으로 展開되는 가운데 獨立協會運動으로 點火되었다. 獨立協會運動은 大衆의 自覺的인 參與를 통하여 對外的으로 列強의 侵略을 물리치고 對內的으로 國家社會의 全般的인 改革을 斷行하고자 官選 民選의 中樞院議官을 뽑아 立憲代議政治의 實現을企圖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獨立協會는 自主獨立을 수호하기 위하여 列強의 經濟的 利權侵奪을 배척할뿐더러 民權을伸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政府官吏의 無能한 施策도 규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獨立協會는 民族文化論을 제창하여 實學을 개발소개하기도 했으며 國史와 한글研究를 종용하여 傳統文化의 創造的繼承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獨立協會는 이와같이 民族의 自主性을 촉구하는 가운데 1896년에 獨立門을 建立하고 1897년에는 自主的인 守舊派와 提携하여 大韓帝國이라는 國號를 定하고 國王을 皇帝로 號稱하는등 民族의 主體性을 宣揚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實學의 近代的 民族文化의 傳統을 이어 받으면서 西歐의 東漸에서 비롯되는 韓國民族主義의 形成過程에서 近代的國家意識이 成長하여 熟음을 살폈다. 近代的國家意識이 爽트는 初期段階에서는 支配엘리뜨를 중심으로하는 衛正斥邪運動을 통하여 守舊의인 王朝의 正統性을 保全하려는 國家意識이 강력하게 대두하였으나 한편 實學의近代志向의 社會改編運動의 전통을 이어받아 歐美의 文化를 能動的으로 受容한 近代的知識엘리뜨를 중심으로한 開化派에 의하여 一連의 近代的 國家를 指向하는 運動이 展開되었다. 開化派의 위로부터의 近代化 改革運動은 甲申政變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이 挫折되자 傳統體體에 기반을 둔 東學系統의 農民大衆을 中心으로 하는 밑으로부터의 近代化改革運動이 展開되어 官人支配體制에 대한 再整備가 促求되었다. 甲申政變에 있어 知識人엘리드가 要求한 近代化綱領이 大衆의 呼應을 받지 못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東學이 要求한 弊政改革

(43) 吳知沫著東學史, 서울 1940. pp. 126-27. 全州和約과 農民의 弊政改革案 參照.

(44) 東學亂記錄 上. 韓國史料叢書 10卷. pp. 108, 123.

案은 外國軍隊의 派兵으로 結實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 近代民族主義의이고 國家主義의 意識만은 後世에 繼承되어 마침 獨立協會運動으로 나타난 것이다. 獨立協會運動은 甲申政變이나 東學運動의 歷史的 經驗을 土臺로 近代的 知識層과 官과 民衆이 合勢한 國民大衆運動이었으며 모처럼의 組織的으로 動員된 이러한 民衆運動도 日帝의 植民地化侵略으로 일단 挫折되고 말았으나 祖國을 解放하여 民族의 自主獨立을 戰取하려는 抗日獨立民族運動으로 계승전개된 것이다.

七. 開港以後의 政治文化의 展開

19세기의 西勢東漸을 계기로 우리보다 먼저 國力を 키워왔고 우리보다 조금 먼저 西歐를 배워 부강하여진 바로 우리와 같은 文化圈속의 日本에 의하여 强要되어 開國하였을 때 우리는 外國의 開港要求를 거절하고 이들이 物理的 힘을 동원하여 來侵했을 때는 駁斥에 이를 駁斥하였고(1866년의 丙寅洋擾, 1871년의 辛未洋擾) 당시의 實權者 大院君은 撫夷의 단행을 內外에 聲明하여 八道의 要衝에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이라는 碑를 세워 鎮國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日本은 帝國主義의 侵略의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江華島에서 雲揚號事件을 도발하고 급기야 不平等한 江華修好條約을 강요하였다. 이 修好條約으로 朝鮮朝는 그 500年의 傳統的인 事大交隣의 外交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西歐的 秩序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韓國史의 歷史進行過程에서近代意識의 成長過程의 與否보다도近代的 西歐秩序와의 最初로 制度化된 접촉이었고 또 最初로 겪어야 하는 西歐的近代와의 對決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韓民族은 歷史上 최초로 西歐와 만나면서도 實質上 그 西歐와 직접 만나지를 못하고 같은 文化圈속인 中國 특히 두드러지게 日本을 통하여 間接으로 만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韓民族은 近代를 體驗하면서 自己의 體質을 西歐만이 아니라 같은 文化圈의 日本과의 사이에서도 조절해야 하는 무거운 二重負擔을 짊어져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韓國의 近代로 연결되던 모든 西歐的內容과 性格이 日本을 통함으로서 그만큼 줍아지고 變質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근본적으로 主體性의 危機를 안고 나타난 開港은 韓國의近代화에 대한 계기로 기대되었으나 그같은 開港은 韓國의近代화는 實踐해 주지 못한채 오히려 日本의 經濟的 侵奪과 政治的 干涉으로 韓國近世史의 主體단을 파괴하는 不幸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시련많은 近世政治史의 후반에서도 우리는 그不幸한 近世史를 극복하기 위한 民族의 主體的活力으로서의 自主와 開化 또는 進步를指向한 꾸준한 努力은 계속되었다. 이와같은 主體的活力과 進步改革의 努力들은 바로 朝鮮의 近世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民族의 近代史段階로 뻗어나가려던 民族史의 連續的인 創造力이 있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즉 王朝初期에 대두한 前述한 士林派의 政治思想을 비롯해서 특히 兩亂以後近世史 그 자체에 대한 自覺위에서 나타났던 實學運動과 같은 代表的인 줄기도 있고 다시 거기에는

兩亂의 쓰라린 體驗을 통하여 배양되면서 뒷날 帝國主義 침략 앞에서 獨立運動 義兵運動등으로 솟아오를 수 있었던 民族의 主體的인活力의 출기도 있었다.

그것은 天主教의 전래와 같이 西歐의 壓力이 일종의 文化的인 優越의 형태로 밀려오던 18世紀와 19世紀初에는 自己文化의 純潔(吾道등)과 自己基礎社會(宗社나 吾黨등)를 지키려는 關闡思想으로 나타났고(衛正斥邪의 初期形態) 그것은 다시 通商의 强要나 洋擾의 충격과 같은 西歐의 그것이 직접적인 經濟的인 物理的인 힘의 形態로 밀려오던 19世紀 중엽에는 직접적으로 西洋이나 外勢를 마음으로써 朝廷이나 國家의 運命을 지키려는 「禦洋思想」으로 나타났었다(衛正斥邪의 中間形態).

이같이 물리쳐야 할 對象을 직접 西歐列強과 같이 强한 바깥으로부터 만나 더욱 가열화된 衛正斥邪思想은 다시 19世紀 후반 日帝에 의하여 강요된 不平等條約으로 위협을 받았을 때 斥倭斥洋이나 倭洋一體를 직접 내세우고 亡國의 위협과 싸우려는 斥和運動의 形態로 나타났다(衛正斥邪의 後期形態) 예컨대 抵抗의 軍亂(壬午軍亂)도 있었고 開化派가 主導한 改革에의 政變(甲申政變)이나 甲午改革도 있었으며 다시 民族的인 抗拒戰列(東學運動)도 있었다.

이와같은 思想的命脈은 20世紀初 主權의 상실(乙巳條約) 뒤에서는 그대로 義兵運動 또는 3.1運動을 비롯한 國內外의 民族獨立運動으로 나타났으니 그것은 한편에서는 斥倭斥洋과 같은 斥帝國을 내세웠던 東學民族運動과도 思想的으로 그대로 직결되는 民族主義의 底力이었던 것이다.

한편 19世紀後半 朝鮮朝 近世政治史의 말미에서는 民族史의活力은 계속 獨立開化를 指向하면서 自主와 進步의 兩面으로 발휘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近代로 向하던 韓民族의創造와抵抗兩面에서의 歷史的活力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거기에는 衛正斥邪라는抵抗과 開化라는創造의 측면이 결합된 道는 우리의 道요 技術은 西洋의 技術이라는 東道西器思想도 있었다. 東道西器의 思想은 西洋을 배우려는 援西와 開化를 政策으로 實踐하려는 1880年代初에 나타난 思想(甲申政變의 革新綱領등)의 한 形態로서 이같은 穩健開化派思想은 뒷날 開化의前提로서 主權과 獨立을 내세워 바로 進步와 自主를 實踐的으로 調和시키려던 獨立協會의 獨立自強精神 또는 運動 등으로 연결되어 갔다.

이같이 近代를指向하던 自主와 進步抵抗과創造의活力이 가장 집약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났던 代表의인 近代民族主義運動이 바로 3.1運動이었던 것이다. 즉 거기에는 日帝侵略統治에 抗拒하는 民族의 측면에서의抵抗과 함께 다시 그같은 抗拒에서 새로운 近代國家(大韓民國臨時政府)를 탄생시키는 自主獨立國家建立의創造가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던 것이다. 마침내 第二次世界大戰을 계기로 解放과 光復을 맞이했으나 列強의 權力政治로 말미암아 民族史의 悲劇으로서 國土의 分斷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와같은 民族分斷은 美·蘇兩大陣營의 冷戰體制構築과 全體主義共產政權의 위협으로 民族의 對立과 異質化를

深化시켜 결국 民族에 대한 主體性의 危機와 民族史에 대한 正統性의 危機가 二重으로 同 시에 밀어닥쳤던 것이다. 이와같은 民族的 危機는 마침내 韓民族의 歷史的 正統性을 總量面에서 계승할 뿐더러 近代自由民主國家를 새롭게 탄생시킨 3.1運動精神을 承繼한 法統性을 지니고 世界民主友邦의 支援下에 建國된 大韓民國의 正統성을 근본적으로 危脅하게 한 것이다.

反民族的 共產政權의 南侵으로 同族相殘의 6.25悲劇을 前後하여 無能과 無責任을 노정한 李承晚 自由黨政府는 4.19學生義舉를 自招하였고 4.19精神으로 革命課業을 遂行할 것이 기대되었던 民主黨政府는 그 内部分裂과 指導力의 빈곤으로 無能을 폭로하다. 드디어 5.16軍事革命을 誘發하였다. 軍事革命政府는 民主主義를 당분간 全面的으로 留保한 채 經濟 5個年計劃을 위시한 近代化課業을 本格的으로 計劃推進하였다. 民政移讓이후 第3共和國體制下에서 朴正熙大統領과 共和黨政府에 의하여 近代化課業이 계속 추진되었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 列強의 데탕트 政策으로 韓半島의 주변 國際權力構造가 本質의으로 개편되고 南北韓은 일시 對決하는 가운데 對話가 試圖되기도 했으나 北韓 共產政權은 아직도 南朝鮮革命의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侵略的危脅에 대처하면서 우선 南北韓의 平和를 定着시키고 統一課業을 주도적으로 완수하여 民族中興의 여러 課業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維新體制를 갖추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韓民族이 짊어져야 할 가장 소중한 近代化의 使命은 바로 이와같은 危機를 극복하는 일이며 그것은 또 民族史의 自律的 展開를 使命으로 확인하는 일이라 하겠다.

八. 結論

앞에서 우리는 韓國政治文化의 歷史的 展開過程에 있어서 韓國의 傳統文化속에 本質的因素으로서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들이 縱的 命脈을 이루며 어떻게 連續되어 왔으며 또 그 것은 如何히 時代性과 社會性의 規制를 받아가면서 變化되어 왔는가를 主로 發展指向의이고 肯定的 側面을 中心으로 概略的으로 살펴보았다.

過去 歷史上의 諸事件이나 文獻을 통하여 우리는 韓國의 傳統的 政治文化속에 血緣共同體의 親和 大同의 屬性이 基底를 이루고 韓國人の 個性的 屬性으로서는 우선 正義를 追求하려는 潔白한 성벽이 뛰렷이 침재하고 있으며 또 이들과 關聯하여 한편에 있어 家父長的 權威主義와 敬天敬愛의 思想 및 爲民思想과 人本主義의 平等思想이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個體나 國家水準에서 根本志向의 正義意識을 바탕으로 하는 花郎精神, 선비精神, 忠孝思想 또는 家父長的 國家意識등이 文化的 底流를 이루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그리고 韓國政治史展開에 있어서는 古來로 對外的으로 自主性과 主體性의 守護 그리고 對內的으로 進步와 改革의追求 나아가서는 自由와 抵抗의 精神이 뿌리깊이 潛在하여 政治發展의 活力素가 되어 왔음을 알수있겠다. 그리고 世界속의 韩民族이 언제나 文化民族으로서 그 主體

性을 부각시키고 있는 基本 原因은 外來의 普遍性이 같은 文化를 受容하여 우리나라의 文化와 實情에 맞게 再創造하여 士着化시키고 昇華發展시키는 文化創造能力에 있음을 確認할 수 있겠다.

以上 要約하건데 韓國政治文化의 展開에 있어서 連續的인 命脈을 이루는 特質의인 要因은 첫째로 親和性을 바탕으로하는 大同主義와 潔白性을 基底로하는 根本主義이며 둘째로 自主性과 進步主義의 志向이다.

첫째로 親和性과 潔白性에 關해서는 本來 韓民族은 單一民族으로서 血緣的으로나 文化的으로 同質性이 높은 國民이며 地政上 周邊强大民族의 頻繁한 外侵을 받아 왔으나 그때마다 外敵을 물리치고 主體性을 守護하기 위하여 民族內部의 強力한 統合性을 유지하고 大同團結을 도모했으며 이를 위하여 統治過程도 倫理的 仁政을 바탕으로 하는 權威主義와 敬天敬愛의 爲民的인 人本主義 平等主義 및 國民總和를 志向하는 政治的 指導性 등을 強調해 왔으며 한편 破邪顯正의 潔白한 성벽은 個人生活이나 國家生活에 反映되어 日常的으로 風流道를 崇尚하고 外侵으로 빚어진 國難에 臨해서는 集團志向의 忠誠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家父長的 國家意識을 바탕으로 忠孝精神으로 나타났으며 友邦善隣에 대해서는 交隣秩序와 親交關係를 존중하고 平和主義를 指向한 것이다.

이와같이 親和의 屬性에서 大同主義와 權威主義 王道政治 敬天敬愛思想과 民本主義 및 爲民思想 나아가서는 平等主義와 民主的 傳統 그리고 國民總和로 그리고 潔白性의 屬性에서 根本主義志向과 선비精神, 花郎精神, 忠君愛國精神, 家父長的 國家觀 나아가서는 國際平和主義로 連結된다 하겠다.

둘째로 自主와 進步의 追求에 관해서 우선 外部로 부터 충격이 있을때 마다 自主意識과 主體意識이 強化되고 있으며 이러한 自主性은 時代에 따라 關闐思想 衛正斥邪運動 民族主義運動 自主獨立運動 東道西器思想등으로 形態를 바꾸어 나타나고 있다. 또 進步主義는 古代로 부터 民間信仰으로서 圖讖思想이나 陰陽五行說에 基礎를 둔 風水地理說을 통하여 表現되어 왔다.例컨데 鄭鑑錄이나 朴趾源의 許生傳등에서 當代民衆들이 現實政治를 풍자 또는 批評하여 理想社會를 追求하려는 變革意志를 읽을 수 있으며 實學思想이나 開化運動에서도 社會改革의 體系的理論을 發見할 수 있고 또 各種 新興宗教運動이나 基督教徒의 宣教活動을 비롯하여 洪景來亂, 三政의 亂 같은 民亂 東學思想 강증산의 維新開闢思想 나아가서는 獨立思想등에서 進步主義와 改革思想의 命脈을 찾아 볼수 있는 것이다. 무릇 中國과 같은 社會가 그 特有한 繁文綱禮와 舊慣墨守主義의 壓迫으로 세로운 것에 대한 感覺이나 進步에의 意慾을 完全히喪失한 데 比較하면 韓國의 경우 歷史上 進取的인 思想이나 事件들이 많았었다고 본다.

세째로 自由와 抵抗은 前述한 自主와 進步와 表裏關係에 있다고 하겠으며 우리는 韓國의 傳統文化속에서 連綿히 계속되어온 自由와 民主的 遺產을 찾아 볼 수 있고 또 不義의 政治

的 彈壓이나 獨裁에 抗拒하여 自由와 正義 그리고 真理를 지키려는 不屈의 抵抗力を 發揮하여 왔다. 다음 여기서 朝鮮王朝末葉에 있어 政治文化의 展開에 관하여 概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近代的 個人的 自由의 理念이 도입된 것은 開港(1876년)을 전후하여 西歐의 近代文化가 이입되면서부터이며 그것이 甲午改革을 통하여 日帝의 外재적 충동에 의해서나마 政府를 중심으로 제도상 보급되었고 그 동안 獨立自主와近代化 意識이 韓國 民衆 속에 성장해 오던 차에 적어도 自立의이고 在內的인 社會運動으로서 조직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大韓帝國이 성립하고 獨立協會의 운동으로서 內政改革과 民主政治運動이 전개된 때부터라고 하겠다. 甲申政變이후 10여년이 되자 刊行된 「獨立新聞」은 근대사상과 민주 정치 道伯 郡守의 民選制 정부 관리의 公僕으로서의 責務 그리고 女權伸張 등을 제창하여 민중을 계몽하고 선전하였다. 徐載弼박사의 지도 밑에서 獨立協會는 근대민주정치의 계몽과 기초훈련 및 토론과 응변술을 가르치고 自主獨立精神을 고취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民主政治運動의 先驅가 된 만민공동의 항쟁은 大韓帝國을 탄생케 했고 時弊를 교정하고 열강의 內政干渉을 배제하는 등 큰 政治的 성과를 거두었으며 뒤이어 전개된 官民共同會의 민중운동은 당시의 반동정부에 과감하게 항거하여 中樞院을 立憲制限君主體制下에서의 議院內閣制 國會의 조직으로 과단히 개혁하는데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王朝末期에 外勢의 농락과 정부 또는 권모배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저만큼 꾸준히 싸우면서 민중을 지도계몽하고 민의를 창달하여 政策에 反映시켜 民主政治를 개발하던 獨立民主運動을 經驗했던 것이며 당시 모처럼 민중 속에 뿌리박고 짹이 뒀던 自主獨立과近代의 自由를 위한近代化運動은 日帝의 侵略으로 빛을 보지 못한 채 말살되어 버린 것이다. 日帝植民統治下에서도 民族의 自主獨立을 戰取하려는 運動은 國內外에서 廣範圍하게 展開되었다. 三·一運動, 上海臨時政府를 위시한 海外 各地域에서의 獨立解放運動, 新幹會 光州學生事件등 一連의 事件을 들 수 있겠으며 解放後에는 國土가 分斷된 상태에서 大韓民國政府의 樹立과 民主政治의 試煉을 經驗하여 온 것이다.

네째로 우리民族은 外來文化를 受容하고 傳來의 民族文化와 人類의 普遍의in 文化를 調和시키면서 主體의으로 再創造해 나아가는 潛在의 超越의 傳統을 繼承해 왔다.例컨데 佛教 儒教 基督教 또는 西歐 民主主義등 外來文化를 受容함에 있어서 主體의 批判의 土臺에서 再創造하여 土着化시켜 왔으며 때로는 外來文化를 民族의 個別性속에 매몰시켜왔고 또 때로는 普遍性 앞에 個別性을超越해서 補完해 왔다.

물론 韓國에 있어서는 絶對的 人格神을 中心으로 하는 宗敎가 없었고 그것을 基礎로 하는 준엄한 聖俗二元論의 傳統도 없었으며 絶對不可侵의 超越者가 存在하지도 않은 世俗性이 농후하고 그러면서도 個別의in 特殊性이 농후한 創意의in 政治文化의 傳統을 배양하여 계승해 왔다.

古來로 韓國人 그중에서도 특히 지배층의 精神生活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天命

觀을 보더라도 天이라는 概念은 天子, 天意, 敬天, 順天, 從天등의 낱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自然現象 그 自體이면서 幽遠, 神秘 따위의 비현실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접 體驗할 수 있는 소박하고도 現實的인 中庸主義 精神이 그것을 支配하고 있었으며 결국 인간이나 또는 民心과 결부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天中心思想은 일종의 平等觀을 낳은 것이며 그平等앞에서는 帝王의 地位 조차도 결코 絶對的일 수 없었으며 이로서 天命思想은 人間의 無差別平準化라는 社會的 身分觀의 기본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른바 土農工商이라는 階層秩序는 유럽 封建社會의 身分制度와 비교할때 階級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유동적이었던 것이다.

이로서 보건대 政治文化의 西歐型에 대하여 東洋型 다시 東洋型 중에서도 특히 韓國型日本型 中國型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韓國보다 앞질러 順調롭게 發達한 西歐型에 特히 重點을 두어 거기서 韓國型의 後進狀態나 變型의in側面을 지적하는 것도 無關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西歐型과 韓國型과의 性格의in相違를 망각하고 西歐에 存在하고 韓國에 缺如된 것을 언제나 西歐의 韓國에 대한 優越性을 證示하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마치 「막스·웨버」와 같이 西歐的偏向에 빠진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韓國政治文化의 創造的 實踐으로 世界文化는 새로운 뜻을 더함과 아울러 보다 풍부한 內容을 갖추게 되기를 기대하여 오늘날 韓民族은 우리가 直面한 現實과 激變하는 國際政治狀況속에서 그 歷史的課業들을 推進하기 위하여 傳統속에 民族의 슬기와 政治文化의 連續的 命脈을 오늘에 되살려 民族發展의 活力素로서 再創造할 것이 促求되고 있다고 하겠다.